

考試科目	韓文 311/G	所別	外交學系	考試時間	3月1日(日) 第二節
------	----------	----	------	------	-------------

韓
翻
中
(
每
題
25
分)

1.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이다. 뉴질랜드는 14 번째 FTA 체결국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2 개국과 FTA 를 체결,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국내 총생산 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 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 를 타결지음에 따라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닌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 해외유학 인기가 사그라들 조짐이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출하는 유학연수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와 교환학생 포함, 초·중·고 조기유학생 불포함)의 학비와 체류비로 나간 금액은 37억 달러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인 유학생의 유학 연수비는 1980년대부터 해외유학 붐을 타고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에 50억 2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불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해외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1위를 달렸다.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른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각각 9.2%대 8.2%였던 데 비하면 일본과의 격차도 한층 커졌다. 한국산 부품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수요팽창에 힘입은 성과다. 중국의 전자·기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50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8% 늘었으며 자동차부품(39억 달러)과 컴퓨터 주변기기(31억 달러) 수입액도 각각 16.6%와 76.3%씩 급증했다. 중국내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선호와 일본과의 영토갈등에 기인한 일본산 기피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4.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부터 그렇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전투비행대와 잠수함 부대로 타격하는 훈련을 직접 지휘하면서 한 발언이다. 대외 관제에서도 도발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회견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두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갈등하는 러시아 편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備註	一、作答於試題上者，不予計分 二、試題請隨卷繳交。
----	------------------------------